

# 보령시, 해양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대천해수욕장과 머드 축제의 고장 보령시가 해양을 통해 미래 100년을 열어가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이 선정됐고, 마리나 산업과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사업 착수로 보령신항 건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이후 동서 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내년 연말이면 국도 77호 보령해저터널이 완공돼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마리나 산업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고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해양레저 문화 확산 및 마리나 산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대천항(보령복합)과 원산도가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으로 반영됐다.

대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보령복합 마리나항만의 경우 보령시는 오는 2030년까지 정부예산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 등 1천200억원을 투입해 복합 해양레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는 요트와 레저 보트 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고 호텔과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섬·해수욕장·해안길을 연결하는 바다 루트 개발과 해양 레포츠 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령신항

지난 1997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이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신항만 건설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

였던 보령신항 건설이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기지개를 켜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까지 항만시설용 부지인 준설토투기장과 관리 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18만 t 급 선박 운항이 가능하고 공용항로의 안정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연료수급 기반도 갖추게 된다.

## 해저터널로 육지로 변하는 원산도...국도 77호 건설

보령 대천항과 태안 영목항은 육안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75km의 거리를 돌아 1시간 30분이나 소요된다.

2019년 연말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됐고, 2021년 연말이면 6천927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 개통된다. 이를 통해 보령 대천항을 출발해 원산도를 거쳐 영목항까지 방문하는 데 불과 10분이면 가능하게 된다.

보령~태안 국도 77호는 바다로 단절된 국도를 연결하고,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관광의 시너지 효과 발생, 서해안과 천수만 환경보호, 동일 생활권 구축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산도에는 호텔과 콘도, 아쿠아월드, 마리나, 승마장, 오토캠핑장을 갖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 주제 리조트인 원산도 대명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



1 김동일 시장(가운데)이 원산도 현지점검을 나섰다. 2 보령 복합 마리나 조감도

